

일본의 섬유기술지원센터

- 전략적 사업으로 새로운 직물 시작 시스템 연구

일본의 ‘효고현립(兵庫縣立) 공업기술센터’의 ‘섬유공업기술지원센터’는 2007년도의 ‘전략적 기반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으로서 ‘저코스트 · 단납기 · 고품질로 환경에도 배려한 직물 시작(試作)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염색기술과, 동시에 여러개의 색실(色絲)을 이어주는 기술을 확립하며, 선염직물의 시작(試作)에서 애로 사항인 염색과 경사준비의 두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타 연구사업으로는 ‘오리지널 직물의 신상품개발’, ‘무기형광체(無機螢光體)를 사용한 직물개발’, ‘가공기술과 소재를 짜맞춘 직물 개발’, ‘마이크로파에 의한 섬유 분야에의 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호제 분해 산소(糊劑分解酸素)의 다품종 소로트 대응 지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일렉트로 스피닝법(Electro-Spinning method)을 사용한 방적사 제조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기술지원사업에서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중견기술자 양성, 기술 어드바이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